

일본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

국제교육 협력 강화 성과 거둬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9~13일 5일 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관서지역(오사카·교토·나라) 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어,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KOTRA 도쿄무역관 등과 구체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교육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12일 사이타마 수퍼 아레나에서 열린 한류박람회에서는 KOTRA 도쿄무역관 및 ISCO 혁신전략센터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MOU를 맺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 특성화 학생들이 일본 현지 기업에서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됐다.

더불어, KOTRA와 ISCO는 해외 취업 지원 및 일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 취업 및 연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육감은 11일 도쿄도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쿄도교육위원회의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9~13일 5일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교토 등 관서지역 한국교육원과 협약 체결 이어 KOTRA 도쿄무역관 등과 글로벌 인턴십 협력 "국제교류수업·학생 해외연수 활성화 계기"

글로벌인재육성부장 노부오카 신고와 양 지역 간 국제교류수업 확대 및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문단은 이날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IB(국제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월드스쿨 운영 현황도 살펴보았다.

또한 동경한국학교를 찾아 재일한국 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둘러본 후, 에듀테크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한 학교 측의 고민을 듣고 전북 미래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이번 일본 방문으로 국제교류수업 및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개교 77주년을 맞아 화합의 기념행사를 가졌다.

전북대, 개교 77주년 기념행사... 변화·혁신 다짐 '창조적 응전'의 길 기운차게 가자

미래인재상·자랑스러운 동문대상·공로대상 시상식도 열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개교 77주년을 맞아 화합의 기념행사를 가졌다.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삼성문화관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 역대 총장단,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등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 지역 주요 기관장, 최병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진, 국내 주요 대학 총장, 지역 언론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7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학 위상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등 풍성하게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 글로벌 대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전북대가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에 역할을 한 사피드 하사디(Chafik RACHADI) 주한 외교사절단장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주한 호주 대사관 등도 자리를 함께해 전북대의 77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전북대학교 개교 77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동현 교무처장이 지난 77년 전북대가 걸은 길을 소개했다.

또한 장기근속자 표창을 포함해 대학발전에 기여한 교직원들을 시상하는 '미래인재상'과 우수부서, 우수학과, 자랑스러운 동문대상 및 전북대학교 공로대상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이날 미래인재상 교원 부문 대상에는 조재혁 교수(공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직원 부문에는 교무과 교무팀과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이, 학생 부문에는 최현지(인문대 영어영문학과)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우수학과 대상에는 생활대 주거환경학과가, 성과관리 최우수부서에 기획처 기획조정과, 재정운영 최우수부서에는 국제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동문대상에는 21년째 발전기금 기부를 통해 4억1,000만원을 기부한 김형년 인천중앙동물병원장이, 공로대상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박진상 원장이 각각 수상했다.

양오봉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77년 전북대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대미륵'이라면서 "지역의 작은 대학이었던 전북대가 77년의 세월을 거쳐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8천여 이상의 대규모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해 대학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전북대 모든 가족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창조적 응전'의 길을 기운차게 가자"고 역설했다.

끝으로 양 총장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처럼 창조적 응전으로 맞서면 번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며 "전북대의 비상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대응 '맞손'

전북교육청, 방심위와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추진했다.

이날 협약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다.

협약에 따라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 진행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의 전용 신고센터(1377)와 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Net) 안내 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 자료 개발·배포 △학생 대상 디지털 윤리 및 시민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류희립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영상물 제작과 편집이 일상

에서 손쉽게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 영상물이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피해 영상물 삭제 및 교육, 홍보 등 공동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대, 내일 개교 73주년 기념 학술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은 오는 16일 익산 특성화캠퍼스 도서관 일원에서 개교 73주년 기념 학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을 비롯해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을 엿볼 수 있는 학술발표 경진대회, 우수 구성원 시상, 그리고 국내 수의대 최초 3T MRI 장비 도입 기념 심포지엄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오전 9시부터는 학부생을 위한 진로특강의 날 행사를 통해 수의학 여러 분야에서 현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초청돼 학생들이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학술발표 경진대회에서는 전북대 수의대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연구분야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개교 73주년 기념식 행사가 열린다. 학술상과 공로상, 우수 학생상, 우수 연구자상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외래교수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는 국내 수의과대학 최초로 최첨단 인공지능 3T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도입 기념으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3T MRI 도입배경 및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서울대 및 충북대 등 수의영상의학 분야 석학들이 초청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한편, 195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의학 교육의 문을 연 전북대 수의대는 1955년 39명의 첫 수의사를 배출한 이후 학사 2,232명, 석사 665명, 박사 247명을 배출하는 등 국내 수의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익산 특성화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전국 최대 동물병원 건립, 아시아 최대의 인수 공통 전염병연구소 건립, 반려동물 산업 수요 대응 동물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한국 동물용 의약품 평가연구원 건립 등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수의학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210억원 규모의 '실용동물센터'를 신축 중에 있다.

/정은성 기자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 인권 보호·인권 침해 예방 협력

전북교육청-스포츠클럽센터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스포츠클럽센터(이사장 박지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스포츠클럽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박지영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는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발전에 목적을 뒀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운동부 현장의 인권 보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스포츠 윤리보호관 운영 △학교운동부 비리 및 학생선수 인권침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스포츠클럽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학교운동부 비리 및 학생선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교육 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

선수 및 학교운동부의 스포츠인권교육 △학교운동부 운영교의 교장, 교감, 지도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스포츠인권교육 △학생선수의 월 1회 상담 의무적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정은성 기자

고1·2 진로진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19일 1:1 학생 맞춤형 진학컨설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컨벤션홀에서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All in One 진학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상담교사 3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과 1:1 방식으로 다양한 대입 전형 유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https://www.jbe.go.kr/jmo)을 통해 사전에 접수한 120여 명의 학생과 학부

모가 참가한 가운데 학생 1인당 40분씩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진로진학센터 누리집(https://www.jbe.go.kr/jmo)을 참고하면 된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진학컨설팅은 학생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생 스스로 진로 탐색과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게 입시를 준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산학협력단, 전북베이커리교과와 협약

직업교육 분야 공동연구 통한 신기술 습득·전수 노력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상진)은 전북베이커리교과(교장 안영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베이커리교과 춘천마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상진 산학협력단장, 전효진 산학협력부단장, 이대희 외식산업조리학과장과 안영태 교장, 노은희 교감, 유항숙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교육 및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신기술 습득 및 전수 노력 △상호간 실험·실습 및 연구 시설의 공동 활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진 단장은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연구 프로젝트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태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맞춰 실무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